

재혼가정에 대한 단기가족놀이치료의 적용 사례

김 유 숙[†]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본 연구는 가족치료과정에서 놀이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재혼가족의 치료에 놀이를 활용하여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사례는 3개월에 걸쳐 가족사정과 가족치료와 놀이치료를 접목한 가족놀이치료를 5회기 실시하였다. 재혼 8개월째로 자녀양육과 가족의 응집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가족놀이개도, 가족퍼펙트극, 가족정원 등의 기법들을 적용하면서 사회구성주의 관점의 가족치료를 시도하였다. 치료과정과 10개월 후에 이루어진 추후면접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공유된 가족역사가 없이 한 가족으로 모인 재혼가족은 놀이라는 은유의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였다. 이것은 문제해결에도 큰 역할을 했으며 궁극적으로는 가족으로서 응집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이전 가족에서 경험한 다양한 상처를 안고 있는 재혼가족에게 예상되는 가족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다. 그리고 본 사례에서 사용한 여러 가지 은유적 기법은 가족이 자신의 이미지를 서로 교환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것은 원활한 가족의 의사소통으로 이어졌다. 궁극적으로 놀이를 통한 공동 경험이 부모자녀의 거리를 좁힘으로서 긍정적인 문제해결을 이끄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는 재혼가정에게 단기간의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법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재혼가족, 가족놀이치료, 사회구성주의 관점의 가족치료, 은유적 놀이방법

* 본 논문은 2005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김유숙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139-774)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126

E-mail : yookim@swu.ac.kr

가족치료자는 치료의 단위는 어디까지나 가족이라고 점을 강조하며, 도움을 받으러 온 내담자역시 가족단위의 서비스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치료과정에 어린 자녀가 포함될 경우 아동을 소홀히 다루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동은 문제행동을 둘러싼 언어적 수준으로 일관되는 치료과정에 적극적으로 이르지 못한다. 때때로 어른들이 문제행동에 관해 토론하거나 아동에게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을 강요하면서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차단하면, 아동은 자신의 능력, 지식, 그리고 창조적인 자원까지 모두 억제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Stacey, 1995). 초기의 몇몇 가족치료자는 치료과정에 놀이적 요소를 포함하여 가족관계의 내면에 존재한 감정, 태도, 동맹 등을 비언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김유숙, 2002).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가족역동을 이해하는 진단적 도구로 사용되어 치료 장면에서는 폭넓게 활용되지 못했다. 그 이후 아동의 문제로 가족치료를 하는 치료자들은 아동이 보이는 언어를 매개로 한 접근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족치료와 놀이치료를 접목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Ariel, 1985; Eaker, 1986; Gil, 1991; Bow, 1993; Frankin, 2001). 이들은 가족치료 과정에 놀이적 요소인 가족퍼펫인터뷰(family puppet interview), 가족모래놀이치료(family sandplay therapy), 가족놀이가계도(family play genogram) 등의 기법을 개발하여 사용하기도 한다(Gil, 1994). 가족놀이 치료자는 가족을 체계로 인식하면서 내담자와 함께 다양한 활동, 은유적 언어, 상징적 의사소통 등을 통해 가족이 표현하지 않은 문제까지 이해하며 또한 치료적 놀이를 통해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것은 놀이치료와 언어적 접근이 통합된 방법으로 가족문제를 해결

하여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체계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Eaker, 1986). 놀이라는 은유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된 아동은 언어적으로 직면할 때보다 덜 위협을 느끼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 놀이를 가족치료에 활용할 때, 성인역시 의식수준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점이 있다(Winnicott, 1971). 이처럼 놀이는 치료적 접근으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치료영역에서는 치료적 놀이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치료과정에 놀이를 포함할 때 훈련부족으로 인한 치료자의 불편함에 기인한다(Kaduson et al., 2001). 치료자 자신의 불편함 때문에 가족치료에서 아동을 배제한다면 순환적 인과관계에 초점을 두고 가족 모두에게 접근해야 한다는 가족치료의 기본전제에서 벗어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가족놀이치료를 재혼가족에게 적용한 사례검토를 통해 임상장면에서 가족놀이치료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본다.

재혼가족의 치료적 접근

최근 우리사회의 이혼이 증가하면서 재혼도 동일한 곡선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가정형태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장혜경 등, 2002). 특히 그와 같은 변화는 재혼율의 경우가 두드러져서 우리나라 남성의 재혼율은 1994년 9.2%에서 2004년에는 18.2%로, 여성의 경우에는 9.1%에서 20.4%로 증가하였다. 이는 현재 가족을 구성할 때 초혼의 구성비는 낮아지는 반면, 재혼의 구성비는 2배 이상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통계청, 2004).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어 우리사회에서 재혼가족의 비율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재혼가정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극히 미비하며 기존연구도 치료적 개입보다는 재혼가족의 스트레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임춘희 등, 1997; 현은미, 1998; 김연옥, 2002). 치료적 연구가 미비한 것은 재혼가족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가족생활 주기의 흐름에서 벗어나 재혼 시 아동의 연령, 동거가족, 이혼 후부터 재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등의 다양한 변수가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부, 계형제 등의 복잡한 가족구조를 가진 재혼가족이야말로 가족치료가 절실하다. 특히 계부모는 새롭게 관계를 맺는 자녀들과 정서적 유대를 추구하지만 자녀들은 계속 자신의 친부모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려는 엇갈린 기대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 간의 공유된 가족역사가 없는 재혼가족의 경우 치료과정에서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거나 또는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서 치료자들에게 힘든 사례로 인식된다. 즉 이들은 치료과정에서 가족으로 함께 지낸 시간이 짧아서 다른 가족에 대한 배려 없이 그동안 경험한 분노와 좌절감을 모두 쏟아내는 카타르시스적인 표현만 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가족체계를 또 다시 경험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자신의 표현을 극도로 절제하는 양극화된 경향이 보이기 쉽다. 따라서 재혼가족처럼 아직 가족으로서의 역사가 짧은 경우 자신들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때 가족성원이 서로 상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혼가족에게는 언어를 활용한 상담전개보다는 보다 깊은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은유적 놀이를 통한 개입이 효과적이다(Visher et al., 1996).

방 법

일부의 가족치료자들은 통합이 어려운 재혼가족의 경우에는 치료 초기에는 치료단위를 가족전체가 아닌 하위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의 일부만 만나기도 하였다(Visher et al., 1996). 그러나 이 같은 문제에 초점을 맞춘 개입은 자칫 가족 중 한 명을 희생양으로 내 몰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의 치료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의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문제는 가족체계 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화체계 속에 의미로 존재할 뿐이라고 여기는 사회구성주의 관점은 가족으로서의 응집력이 약한 재혼가족의 치료적 개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본 연구자는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현재 가족이 또다시 해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안정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자신들이 지닌 어려움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가족역사가 짧아서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배려가 없이 자신들의 감정을 노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놀이를 활용한 가족치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혼가족에게 가족놀이와 문제해결보다는 강점지향의 치료적 대화를 추구하는 사회구성주의 관점의 가족치료가 효과적일지를 검토하기 위해 사례분석과 척도를 사용한 가족관계를 살펴 보았다.

본 사례는 3개월에 걸쳐 가족사정을 제외한 5회기에 걸친 치료적 개입이 있었으며, 10개월 후 추후 면담이 이루어졌다. 가족치료는 주 1회씩을 원칙으로 했으나, 가족이 모두 참석하기 어려워 여러 번 연기되었다. 치료과정은 팀접근으로 한 명의 치료자가 가족과 만났지만 나머지 치료자도 퍼펙트의 관객입장으로,

때로는 가족의 변화를 확인하는 인증자의 입장으로 치료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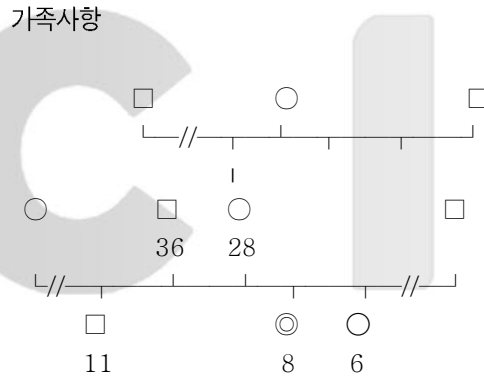
사례개요

본 사례는 재미 한국인 재혼가정으로 어머니가 8세 된 딸이 2개월 전부터 복통을 호소하면서 학교가기를 싫어한다고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접수면담을 통해 자녀의 학교 부적응보다는 재혼가정에서 파생된 어머니의 불안이 주 호소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어머니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자녀들의 성적 접촉을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 같은 불안이 가족의 응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가족치료 과정에서 어머니의 불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응집력이 약한 재혼가족을 오히려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문제해결보다는 해소에 초점을 맞춘 사회구성주의 관점의 가족치료를 실시하였다. 가족 스스로가 그들의 긍정적 공유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이 같은 접근에서는 어머니가 보이는 불안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가족이 가진 강점이나 탄력성을 중심으로 치료를 이끌어 나갔다.

양쪽 모두 이혼경험이 있는 부모는 8개월 전 각자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다. 맞벌이를 하는 이들 가정은 재혼이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 시간보다는 자녀들끼리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사실, 이 가정은 재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서 각 가족구성원이 서로 충분한 교류를 맺지 못한 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다. 어머니가 두 딸을 데리고 남편의 집에서 동거했는데, 8살의 큰 딸은 새롭게 바뀐 환경 탓인지 처음부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2개월 전부터는 복통을 자주 호소하면서 학교가기를 싫어했으나, 장기간 결석과 같

은 부적응의 행동은 없었다. 단지 어머니는 11살인 남편의 아들과 자신의 큰 딸 사이가 수상한 것 같다는 불안이 있었다. 그 예로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이 큰 딸의 목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아이들은 대소름지 않은 듯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순간 아들이 큰 딸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심하게 야단을 쳤는데, 의외로 큰 딸은 아무런 호소도 하지 않았다. 그 때 큰 딸이 처음부터 아들을 잘 따랐다는 것이 생각나 이것이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성적 접촉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아들과 첫 딸의 석연치 않은 신체접촉을 자주 목격했으나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못 본 척 하고 있다. 이 같은 어머니의 불안은 가족 통합과 관련되어 있음이 알 수 있었다.

가족사항



미국으로 이주한 부모는 각각 이혼 후 한 부모(남편은 4년 전, 부인은 2년 전)로 살아가던 중 약 일 년 전에 교회에서 만나 급속하게 가까워졌으며, 알게 된지 4개월 만에 계자녀들끼리 충분한 교류가 없이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자녀들은 자신의 친부모들과 계속적인 교류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친모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 가정에 개입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재혼은 어머니에게 모든 면에서 부담이 되었지만, 특히 11살 난 아들과의 관계는 더욱 자신이 없었으나, 그 같은 두려움을 남편에게 표현하지 못했다. 어머니와는 달리 두 딸은 처음부터 아들을 많이 따르고 있는데, 아들은 첫 만남부터 우리 가족에게 무뎠던하여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 남편은 자상하지는 않지만 자신과 두 딸에게 친절하다. 어머니는 아들과 큰 딸의 성적 접촉을 의심하면서도 이 같은 염려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어머니는 면담과정동안 필요이상으로 방어적이었다. 치료팀은 이러한 어머니의 태도로 미루어 현재 가진 어머니의 불안은 자신의 어린 시절 심리적 외상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치료팀은 가족놀이치료이후 진행된 어머니의 개인면담 과정에서 아버지의 폭력, 부모의 이혼, 계부의 성적 추행으로 이어지는 어머니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열악한 가정환경 때문에 행복한 사춘기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서둘러 결혼해 두 딸을 낳은 후 이혼했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남편에 대한 신뢰는 있으나 가정해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측정도구

가족놀이치료와 강점지향의 치료적 대화를 활용한 개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들 도구는 초기 치료과정과 10개월 후 추후면접 시 사용되었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검사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Barne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의사소통 검사(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PAC)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청소년기 자녀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자신의 지각을 보고하고 부모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각각 반응을 보고할 수 있도록 부모용과 청소년용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녀용 질문지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계자녀인 딸, 어머니와 계자녀인 아들 각각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딸은 아버지와 의사소통에 관해, 아들이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방식은 5점 Likert식이므로 점수범위는 10점에서 50점이다. 개방형 의사소통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 긍정적이며, 폐쇄형 의사소통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폐쇄적,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임상평가척도

가족들 간의 상호작용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척도로는 Olson과 Killorin에 의해 개발된 임상평가척도(Clinical Rating Scale for circumplex: CR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응집성과 적응성으로 가족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자기보고식 순환모델척도(FACE)를 외부 관찰자 척도로 개발한 것이다. CRS는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의 세 차원을 임상적으로 사정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으로 준 구조적 면접을 통해 측정된다. 주로 가족에게 어떤 과제를 내주고 가족이 그것을 수행하는 동안 가족 상호작용을 관찰하거나 위의 세 차원에 관련된 개념을 가지고 면접을 하는 것이다. 본 척도의 평가자간의 신뢰도는 $r = .70-.80$ 이다.

본 척도에서 가족응집력은 정서적 유대, 가족의 관여,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 내 경계, 외부경계라는 하위요소로 구성되어서 유리, 분리, 연결, 밀착이라는 축에서 평가하였다. 또한 가족적응력은 리더십, 훈육, 협상, 역할, 규칙으로 구성되어 경직, 구조, 융통, 혼돈이라는 축에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포함한 체크리스트에 본 연구자가 평가하였다.

결 과

가족놀이기법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

먼저 본 사례에게 적용한 가족놀이가계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McGoldrick 등에 의해 개발된 가계도는 가족치료영역에서는 자주 활용되는 기법으로 가족 간의 구조를 도식화하여 가족역동을 파악하게 된다. 가족놀이가계도는 이 같은 전통적인 가계도에 놀이적 요소를 첨가한 것으로 치료자는 가족에게 자신을 포함해 가족구성원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한 상징물을 한 가지씩 선택하게 한다. 그리고 가족구성원을 원이나 사각으로 표현한 모조지 위에 선택한 상징물을 놓게 한다. 다 놓은 후 가족들은 표현한 상징물들에 대한 느낌이나 필요하다면 질문을 한다. 가족들은 피드백 과정을 통해 서로의 느낌을 들으면서 다른 가족들의 느낌을 공유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Gil, 2003).

치료팀은 가족들에게 진열장에서 각 가족구성원을 표현하는 상징물을 꺼내 도형으로 가족구성원이 그려놓은 모조지 위에 가져다 놓게 했다. 상징물 선택과정에서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는 사소한 신경전이 있었으나, 다른 가족들은 조용하게 선택했다. 아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상징물로 늑대와 개를 선택했는데, 어머니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치료자의 지시를 강조하면서 아들에게 한 가지를 포기하도록 종용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2개를 놓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치료팀은 이러한 긴장관계는 가정 내에서도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여 상황을 그대로 지켜 보았다. 결국 아버지가 개입해 아들은 개를 버렸다. 그러자 큰 딸이 오빠의 상징물로 선택했던 자전거 타는 남자아이를 치우고 오빠가 포기한 개로 바꿨다. 이후 상징물을 모조지에 놓은 과정에서 아들은 고의로 큰 딸이 선택한 상징물들을 원이나 사각 밖으로 밀어내는 등 큰 딸에게 대한 소극적 공격성을 표현했으나, 큰 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두 딸의 상징물로 세라북의 여자아이와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를 각각 골라서, 큰 딸과 작은 딸의 위치에 놓았다. 또한 어머니는 두 딸을 선택할 때와는 달리 아들의 상징물로 공룡을 선택하면서 아들이 좋아하기 때문에'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분석심리학에서는 공룡의 이미지는 자신 내면에 침입하는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이해하는데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아들에게서 느끼는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피드백 과정에서 작은 딸과는 달리 큰 딸은 세라북을 입은 여자아이를 가르치며 '난 이렇게 작지 않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어머니와 딸의 긴장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치료 후반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또다시 상징물로 표현하도록 했다. 여기서 가족모두가 상징물을 선택하는 것은 시간적, 공

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가족대표를 선발하도록 부탁하였다. 가족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지금까지 상징물선택에 소극적이던 어머니가 스스로 나섰다. 어머니는 주저없이 남편과의 관계에는 예쁜 집, 첫 딸과의 관계에는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 작은 딸과의 관계에는 거울을 놓았다. 이 같은 선택을 통해 어머니가 새로운 가족에 대한 행복한 가정, 어머니로서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그런데 아들과의 관계는 상당한 망설임 끝에 어미오리와 새끼오리 가 한 쌍을 이룬 상징물을 놓았다. 피드백의 과정에서 아들은 난 오리를 싫어해요'라고 어머니가 자신과의 관계를 양육의 형태로 표현한 것에 강한 불편함을 드러냈는데, 이는 재혼가족의 자녀들이 흔히 겪는 친부모와 계부모간의 충성심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또한 치료팀은 전 반부에 어머니가 공룡으로 표현한 아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오리라는 양육관계로 덮으려 애쓰지만 이들 관계는 원활하지 못했다는 가정을 하였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가족의 강점과 탄력성 등에 초점을 맞춘 접근을 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아들과 어머니의 갈등을 표면화시키지 않았다.

가족퍼펙트는 Irwin과 Shapiro(1975)에 의해 개발된 퍼펙트 인터뷰를 본 연구자가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가족은 제공된 다양한 퍼펙트 중 각자가 관심을 가진 것을 선택하게 한 후 선택한 퍼펙트를 모두 사용해 가족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치료자는 내용과 과정 모두를 고려해 가면서 이야기의 구성을 지켜본다. 즉, 만들어진 이야기의 내용에서 상징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동시에 가족이 퍼펙트를 선택하여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동안의 가족역동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가족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연령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퍼펙트를 선택하지 못하다가 큰 아들이 늑대와 토끼를 집자, 큰 딸도 따라서 토끼와 작은 늑대를 집었다. 작은 딸은 올빼미를 집었다. 부모들은 망설임이 아버지는 두 마리 거북이, 어머니는 고릴라를 선택하였다. 치료자는 각자가 선택한 퍼펙트를 모아서 이야기를 만들게 한 후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아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아빠 늑대와 아기 늑대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오랫동안 먹이를 구하지 못해 배가 고팠다. 어느 날 토끼 두 마리가 놀러 나왔다가 길을 잃어서 숲길을 헤메고 있을 때 늑대를 만난다. 토끼 두 마리는 너무 무서워 떨고 있었다. 그런데 늑대들은 마음이 착한 늑대여서 무서워하는 토끼를 보고 잡아먹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고릴라가 나타나서 “이 나쁜 늑대야, 왜 어린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니?”라고 야단을 친다. 늑대는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에요”라고 말했지만, 고릴라는 믿지 않는다. 늑대는 지금까지 상황을 계속 지켜 본 거북이와 올빼미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런데 올빼미는 “난 밤에만 잘 봐요”, 거북이는 “난 기어 다니니까 높은 데서 일어난 일은 몰라요”라고 발뺌을 하자 늑대들은 너무 억울했다.

아들이 쓴 스토리를 관객입장이 된 치료자들 앞에서 가족이 상영하였다. 극은 약 5분간 계속되었는데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퍼펙트를 비디오 촬영하였다. 이를 개발한 Irwin(1993)은 가족이 꾸민 이야기를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치료팀은 본 사례의 경우에는 가족 응집력이 약해서 가족이 표현한 은유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스토리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은 채, 극을 마친 후 느낌만 나눴다. 가족들은 처음 시작할 때와는 달리 오늘의 경험이 재미있었고 앞으로의 가정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적극적인 표현을 하였다.

그 후 회기에서 가족이 만든 퍼펙극을 다시 보게 한 후 치료자와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들은 이야기의 주제를 늑대의 억울함이라고 언급했는데, 치료자의 개입으로 늑대가 어떻게 고릴라를 이해시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바꿨다. 늑대로 표현된 아들의 억울함은 가정 내에서도 자주 벌어질 것이고 추론했으나, 치료자는 문제보다는 해결지향에 관심을 가지므로 주제변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또한 치료자는 이들의 이야기에서 배가 고프고 늑대가 먹이감을 놓고 참을 수 있었던 인내심, 울빼미와 거북이는 자신들이 본 것만 말하는 정직함, 고릴라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치지 못하는 정의감에 대해 각각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였다. 그리고 이 극의 결말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 극의 결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스토리를 만들기 전에 지난 극의 보완작업을 위한 대책회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가족들은 거북이와 울빼미가 좀 더 극에 참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찾지 못하자 치료자는 다음과 같이 개입했다.

치료자 : 거북이는 어떤 상황에서 말을 많이 할까요?

어머니 : 술을 마시면 말을 잘 하는데, 보통

때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버지 : 내가 언제 그랬어. 보통 때도 말을 많이 하는데...

어머니는 남편이 선택한 거북이 퍼펙극과 남편을 동일시했으며, 남편도 같은 맥락에서 반응하고 있었다. 치료자는 남편에게 “난 몰라요”라는 거북이의 반응을 들은 늑대의 느낌은 어떨까요?, 늑대는 거북이에게서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그 말을 들으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까?” 등의 질문을 해 나갔다. 또한, 아들은 어머니가 선택한 고릴라를 추궁하는 캐릭터로 표현하고 있었으므로, 치료자는 “뭐가 이 고릴라를 이렇게 고집불통으로 만들었을까?, 고릴라가 부드러운 적은 없었나?, 고릴라를 어떻게 도와주면 늑대의 말을 들을까?”라는 질문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을 하였다. 이 같은 치료적 개입을 통해 부정적 추궁하는 모습과 고릴라를 분리함으로써 모자관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도왔다. 이 같은 외재화(externalization) 작업은 이야기치료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으로 문제와 그 문제를 지닌 사람의 정체성을 분리해서 문제를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White 등, 1990). 이 같은 퍼펙극을 통한 외재화는 문제를 의인화시킬 수 있어서 보다 안전하였다. 이 사례의 경우 문제의 외재화는 아들과 어머니에게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 퍼펙극의 결말을 위한 대책회의라고 명명된 치료 과정에서는 예외상황, 탄력성을 발견하여 가족 스스로가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도왔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퍼펙극은 다음과 같이 재진술되었다.

아빠 늑대와 아기 늑대가 살고 있었는데

데, 이들은 오랫동안 먹이를 구하지 못해 배가 고팠다. 어느 날 토끼 두 마리가 놀러 나왔다가 길을 잃어서 숲길을 헤매고 있을 때 늑대들을 만난다. 토끼 두 마리는 너무 무서워 떨고 있었다. 그런데 늑대들은 마음이 착한 늑대여서 무서워하는 토끼를 보고 잡아먹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고릴라가 나타나서 “이 나쁜 늑대야, 왜 어린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니?”라고 야단을 친다. 늑대는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에요”라고 말했지만, 고릴라는 믿지 않는다. 이 때 거북이가 “내가 여기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 늑대들은 아주 착한 늑대예요. 토끼를 잡아먹으려 하지 않았어요”라고 변명해 준다. 올빼미도 덩달아 “맞아요. 정말 그래요”라고 맞장구를 치자, 안심한 고릴라는 늑대에게 “내가 의심해서 미안해”라고 말한다. 그리고 고릴라가 “내가 먹이가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함께 가자”라고 해서 모든 그 곳에 가서 배불리 먹었다.

스토리는 다시 상영되었으며 역시 비디오 촬영을 했다. 가족들은 지난 회기보다 적극적으로 유연한 연기를 했다. 극을 마친 후 면담 과정에서도 모두 만족한 반응을 보였는데, 아들의 경우에는 ‘만점이에요’라며 기뻐했다. 치료팀은 항상 제지하던 어머니가 고릴라의 역할을 하면서 늑대에게 사과하는 은유적인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고 추론하였다. 특히, 피드백 과정에서 아들과 어머니의 사이에 많은 상호작용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 가족의 결말이 애정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은유적 표현인 음식물을 배불리 먹는 것으로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가족의 예후는 밝다고 보았다.

또 다른 도구인 가족정원은 가족예술기법 중 하나이다. 가족에게 예술적 기법을 사용하면 자기표현, 자가지각, 긍정적인 가족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기법은 많으나 양육의 은유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가족정원을 선택하였다. Gil(1994)에 의해 개발된 가족정원은 가족이 함께 꽃이나 야채가 자라고 있는 정원을 꾸미도록 하여 가족은 만들거나 오려낸 작품을 녹색의 커다란 모조지에 붙여서 정원을 꾸몄다. 이 가족의 경우 아버지는 밀밭(잡지에서 오래 났), 어머니는 사과, 아들은 옥수수, 큰 딸은 포도, 작은 딸은 딸기를 그렸다. 각자가 만든 작품을 붙여서 과수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전 회기와는 달리 아들이 어머니의 사과를 위해 사과나무를 그려주는 등 이들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현저하게 늘어났다. 또한, 지금까지 오빠의 이미지를 따라 하던 큰 딸이 오빠를 의식하지 않은 채 작품을 제작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이전의 소극적인 태도와는 달리 모조지의 많은 부분에 밀밭을 붙였다. 가족 내에서 아버지 역할이 달라지고 있음을 연상시키는 변화였다. 작품을 완성한 후 치료자는 가족들과 어떻게 하면 이 정원을 잘 가꿀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가족들은 과수원에 있는 식물들이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많이 발견했다. 예를 들면, 물, 햇볕, 거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때로는 잡초를 뽑는 것, 다른 동물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야 한다는 것, 때로는 그들이 식물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등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일련의 기법들을 치료과정에 활용한 결과, 가족 간의 활발하며 유연한 상호교

류가 가능하여 응집력, 적응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관계 척도를 통한 가족의 변화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한 가족 간의 질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치료개입 전과 추후면접 시 2개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의사소통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료개입 시	추후면접 시
아버지 의사소통	아버지 개방형	32	39
	아버지 폐쇄형	27	25
어머니 의사소통	어머니 개방형	18	29
	어머니 폐쇄형	42	30

각 50점 만점인 의사소통에 관한 검사결과를 보면 치료를 시작할 당시 어머니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들이 작성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개방형 의사소통 하위 40%, 폐쇄형 의사소통 상위 40%에 속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의사소통은 폐쇄형 의사소통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10개월 후 추후면접 시 측정된 어머니의 의사소통은 정상적인 범주에 속해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순환척도 외부 관찰자 척도에 의한 평가

응집성

		유리	분리	연결	밀착
	1	2 3	4 5	6 7	8
정서적 유대		•		▪	
가족의 관여		•	▪		
부부관계			•	▪	
부모-자녀관계			•	▪	
가족 내 경계			•	▪	
외부 경계		•	▪		
전체 평가			•	▪	

적응성

		경직	구조	융통	혼돈
	1	2 3	4 5	6 7	8
훈육				▪	•
협상			▪		•
역할				▪	•
규칙				▪	•
전체평가				▪	•

• 치료개입 시 ▪ 추후면접 시

연구자의 주관적 관찰에 의한 평가에서도 가족의 응집력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치료를 시작할 당시 가족의 응집력은 분리의 범주에 속하며, 적응력은 융통에 속했다. 그러나 10개월 후 추후면접 시 측정된 가족의 응집력은 연결의 범주에 속했으며, 적응력은 융통수준의 7에서 6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가족의 응집력이 약한 재혼가족의 경우 은유적 놀이와 강점지향의 치료적 대화를 추구하는 사회구성주의 관점의 가족치료가 효과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재혼 8개월의 가족에게 가족치료와 놀이치료를 접목한 가족놀이치료를 실시하였다. 가족놀이치료를 사례 분석과 척도를 사용한 가족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사례는 3개월에 걸쳐 가족사정을 제외한 5회기에 걸친 치료적 개입이 있었으며, 10개월 후 추후 면담이 이루어졌다. 치료과정은 팀접근으로 한 명의 치료자가 가족과 만났지만 나머지 치료자도 퍼펙극의 관객입장으로, 때로는 가족의 변화를 확인하는 인증자의 입장으로 치료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는 사례 분석과 가족관계를 탐색하는 척도를 활용하였는데, 그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가족놀이치료는 치료초기부터 재혼가족 전체를 치료단위로 한 단기적 개입이 가능하다. 즉, 재혼가족의 치료 초기 이들을 함께 만날 때 예상되는 지나친 위축이나 공격적인 감정표현의 염려는 놀이라는 은유를 통해 희석된다. 따라서 상담초기부터 가족단위의 치료를 가능하므로 경제적 효율성의 면에서도 유용하다. 본 사례의 경우, 첫 상담 시 어머니가 호소한 아들과 딸의 관계, 또는 가족놀이 가계도의 작업 속에서 드러난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하위체계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고 즐거운 놀이를 통한 가족전체에 치료적 개입을 했다. 재혼가족은 가족구성원 모두가 중요한 상실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며, 또한 이들은 서로 다른 경험과 기대를 가지고 갑자기 한 가족으로 모였기 때문에 문제 중심의 접근은 오

히려 하위체계의 다양한 갈등을 노출시켜 자칫 치료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 가족이 현재 나타내는 곤란은 함께 지내온 짧은 역사에서 기인한다고 본다면, 가족에게 즐거움을 경험시키는 가족놀이치료는 가족의 응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본 사례의 경우 치료초기에는 미비하던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치료적 놀이의 과제수행을 통해 치료 후반부에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 졌다.

둘째, 가족놀이치료는 자신의 느낌을 쉽게 표현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재혼가족에게 안심하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었다. 자기표현이 곤란한 가족의 경우에는 신체활동과 같은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놀이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선행 사례연구(Keith, 1981; Gil, 1994; Schaefer, 1994; Rotter, 2000; 염숙경 2002)와 마찬가지로 본 사례의 경우에도 가족들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자신들의 감정을 은유적인 방법으로 표현했다. 예를 들어 퍼펙극이라는 공동과제 속에서 아들은 안심하고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부당함을 고릴라의 의심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놀이가 진행되는 동안 이 같은 억울함에 대해 거북이와 올빼미의 지지로 표현된 가족의 지지를 얻으면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낸다. 이들 가족은 언어적 수준에서는 아들과 어머니의 불신관계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가족놀이가계도 등의 은유적 차원에서 여러 번 노출되었다. 이들은 노출된 어려움을 퍼펙극이라는 놀이를 통해 가족 스스로가 해결해 갔다. 퍼펙의 치료적 활용은 아동의 자발적인 놀이를 이끌어 내기 쉬운 상징적인 재료라는 점에서 진단적 또는 치료적 도구로 자주 활용되었다(Linn, 1977;

Webb, 1991; Gil, 1991; Bow, 1993). 따라서 퍼펙트 기법은 가족 각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욕구를 은유적으로 표현해 치료를 촉진하는데 효과적인 도구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은유적인 정서표현은 특히 재혼가족의 자녀들에게는 보다 효과적이었다. 충성심에 대한 갈등을 가진 재혼가족의 자녀들이 치료과정에서 자신의 이 같은 심리적 상태를 언어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설령 그런 감정을 언어화 하더라도 아직 부모자녀로서 역사가 짧은 계 부모를 상처 줄 우려가 있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언어적 표현에 한계를 느낀 아동은 때로 치료과정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또는 반대로 공격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치료에 이 같은 놀이를 통한 즐거움이 포함되면 아동은 보다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문제를 표현하고 이해해 갈 수 있다 (Freeman, 1997).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파악하는 척도의 결과에서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였던 어머니와 아들의 의사소통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가족놀이치료는 재혼가족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시켜서 이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족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미 다양한 상처를 경험한 재혼가족의 경우 분명한 문제행동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예기되는 불안 때문에 치료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 때문에 느끼는 막연한 불안이나 공유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양육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분명한 치료목표 없이 가족치료를 찾게 하는 경우도 있다. 본 사례의 경우 초반부 어머니의 주 호소 내용은 분명하지 않았다. 전화상담 시에는 딸의 학교부적응을 호소했으나, 대면상담에서는 아들과

딸의 성적 접촉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다. 그리고 그 이후 실시된 가족치료과정에서 어머니의 호소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본 사례는 문제해결에 대한 치료적 개입보다는 놀이를 활용해 가족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예방적 차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 관여하는 힘을 증진시켰다. 그리고 이 같은 경험은 짧은 시간에 가족이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응집력을 높일 수 있으며 가정생활에서 예상되는 문제해결에 탄력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례에서 사용한 임상평가척도(CRS)의 결과에서 보면 추후면담에서 가족의 응집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가족놀이치료는 이후 개입하는 하위 체계의 치료적 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가족의 역사가 짧아서 가족이 함께한 자리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드러내기 어려운 재혼가족의 경우 때로는 별도의 개인 또는 하위체계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미 실시된 즐거움이 바탕이 된 가족놀이치료의 경험은 이 같은 치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하여, 개인이나 하위체계가 심리치료 등의 또 다른 치료적 개입을 필요로 할 때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사례 어머니의 경우 원가족의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불안이 현재 가족과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되어 치료초기부터 어머니의 개인 심리치료를 계획하였다. 치료 초기 방어적이던 어머니는 가족놀이치료이후 쉽게 개인치료에 동의했다. 또한 이것은 가족놀이치료가 가족구성원 모두 참여하는 단기적 접근이므로 치료과정에서 한 개인의 내면문제를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단점을 극복하

는 보완적 역할을 한다.

놀이를 활용한 단기가족치료는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 재혼가족에 대한 개입방법의 모델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은유적 놀이를 통해 가족에 대한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공유된 가족역사가 없는 재혼가족이 가족으로 재구성되는 초기단계에 예방적 차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족놀이치료는 가족전체가 하나의 과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문제를 드러낸 한 개인이 가족이라는 맥락 속에 포함시키는 데 보다 효과적이었다. 언어 중심의 가족치료의 경우, 치료자가 치료의 초점을 한 개인의 증상보다는 가족의 맥락에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가족이 좀처럼 문제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해 한 개인의 문제행동에 머무르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된다. 본 사례의 경우에서는 어머니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한 큰 딸의 문제가 가족놀이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치료의 대상으로 부각된 적은 없다. 가족놀이치료는 치료증상을 가진 아동에 초점을 맞춰서 아동을 회생시키는 치료형태가 아니라, 놀이를 통한 치료과정에서 아동이 정서적 환경을 포함해 그가 가진 어려움의 근원을 들어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Ornstein, 1984). 본 사례에서도 큰 딸은 별도로 실시한 개별 모래놀이치료에서 가정에 대해 통합되지 않은 내면세계를 표현(난장이 나라로 표현되는 긍정적인 부분과 염려스러운 듯 바라보는 마녀의 세계, 반대나라로 가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엘리스의 세계, 삭막한 성의 세계)하였다. 개인치료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 같은 무의식의 표현은 아동의 통합되지 못한 내면세계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보다 심도 깊은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본

사례의 경우 가족과제 수행 시 보인 무조건 오판의 행동을 모방하는 큰 딸의 행동은 회기가 반복되면서 점차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변화해 갔다. 이 같은 변화는 상담 종료 시 아동의 복통증상은 해소는 물론 학교생활도 잘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가족놀이치료는 한 개인의 문제를 가족의 맥락 속에 포함시키는데 용이한 접근이었다.

참고문헌

- 김연옥 (2002). 재혼가정내 모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9, 75-82.
- 김유숙 (2002). *가족치료 (개정판)*. 서울: 학지사.
- 김유숙, 전영주, 김수연 (2003). *가족평가핸드북*. 서울: 학지사.
- 염숙경 (2002). *아동상담과 놀이치료*. 서울: 상조사.
- 임춘희 등 (1997). 노년기의 재혼가족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32-233.
- 장혜경, 민가영 (2002). 재혼가족의 적응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통계청 (2005). 2004년 혼인-이혼통계결과. (www.nso.go.kr)
- 현은미 (1998). 재혼가족발달을 위한 가족 FIRO 모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46-154.
- Ariel, S., Carel, C., & Tyano, S. (1985). Uses of children's make-believe play in family therapy and clinical exam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1): 47-60.
- Barnes, H. L., & Olson, D. H. (1985). Parent-

- 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ow, J. N. (1993). Overcoming resistance. In Schaefer, C. E.(Ed.), *The Therapeutic Power of Play*. Northvale: Jason Aronson.
- Chasin, R. & White, T. B. (1989). The child in family therapy. In *Children in Family Context*. Combrinck-Graham, L. (Ed.) New York: Guilford.
- Eaker, B. (1986). Unlocking the family secret in family play therapy.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3(4) : 235-353.
- Franklin, C., et al. (2001). The Effectiveness of Solution-Focused Therapy with Children in School Setting.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1(4): 411-434.
- Freeman, J., Epston, D. & Lobotits D. (1997). *Playful Approaches to Serious Problems*. New York: Norton
- Gil, E. (1991). *The Healing Power of Play: Working with Abused Children*. New York: Guilford Press.
- Gil, E. (1994). *Play in Family 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 Gil, E. (2003). Play Genograms. In Sori, C. F. & Heckler, L. L. (Ed.) *The Therapist Notebook of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Haworth press.
- Irwin, E. C. (1993). Using puppets of assessment. In Schaefer, C. E.(Ed.), *The Therapeutic Power of Play*. Northvale: Jason Aronson.
- Irwin, E., & Shapiro, M. (1975). Puppetry as diagnostic and therapeutic technique. In I. Jakab (Ed.) *Psychiatry and Art*.(Vol 4). Basel: Karger
- Kaduson, Grard H. & Schaefer, C. (Ed.) (2001). *Short-Term Play Therapy for Children*. New York: Guilford.
- Keith, D. V., & Whitaker, C. A. (1981). Play therapy: a paradigm for work with famili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3) 243-254.
- Olson, D. H. & Killolin, E. (1984). *Clinical Rating Scale for Circumplex*.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Rotter, J. C. & Bush, M. V.(2000). Play and Family Therapy. *The Family Journal*. 8(2): 172-176.
- Schaefer, C. & Carey, L. (1994). *Family Play Therapy*.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Stacey, K. (1995). Language as an exclusive or inclusive concept; Reaching beyond the verbal.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Family Therapy*. 16(3): 123-132.
- Visher, E. B & Visher, J. S. (1996). *Therapy with Stepfamilies*. New York: Francis Inc.
- White, M. & Epston, D. (1990). *Narrative Means to Therapeutic Ends*. New York: Norton.
- Winnicott, D. W. (1971). *Therapeutic Consultations in Child Psychiatry*. New York: Basic Books.
- Zilbach, J. J. (1986). *Young Children in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1 차원고접수 : 2006. 8. 13.
심사통과접수 : 2006. 9. 18.
최종원고접수 : 2006. 9. 22.

A Case Study of Brief Family Play Therapy to the Step Family

Kim, Yoosook

Seoul Women's University

In terms of the family therapy with systematic approach from the standpoint of social constructionist both the therapist and the clients become the unit of a comprehensive family therapy. This is so called the family play therapy practice which was applied to my three months of intervention. To my observation that family experienced the difficulties in meaning the children and maintaining the cohesion of family and its identity. For the practice of family play therapy mainly the following techniques were employed into this work and they are: sandplay therapy, family play genogram, family puppet interview, and family garden. This study's most important significant findings or shall be briefly outlined below: The family of remarriage after has a variety of the unhappy past experiences since there no safety valve in the family history. And yet, through and after the practice of family play therapy the members of the step family under discussion released their metaphorically regrets about the past experiences. Obviously, the method of a metaphorical treatment helped them enjoy the new experiences of family cohesion. At the same time, it was also so effective to the solution of the personal and familial problems caused by remarriag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step family. Futhermore, the practice of metaphoric plays appears to be a preventive mechanism for the step family from its fragility and disintegration. A variety of the techniques which is used in their case study, has speeded the process of the step family members. Mutual image exchange bringing a "sympathetic understanding", as well as an intimate social interaction among them. Likewise, the common experience among the parents and children have helped them gain the mutual trust, kindness, and intimacy, at the same time. After all, the family play therapy techniques which are applied to the present case study, definitely generated their meaningful mutual dialogue.

Key words : *stepfamily, family play therapy, family therapy of social constructionism, metaphoric play method*